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2월 7일)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조계종은 1월 12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사진은 성파 대종사께 참석 대중이 삼배로 신년하례를 올리는 모습.

“조계종풍 아래서 새 시대 새 꽃 피우라”

조계종, 1월 12일 영축총림서 종정예하 신년하례

원로의장 · 총무원장 등 종단 주요 소임자 200여 명 참석
성파 대종사, 종헌종법 강조
“죽순은 돌에서 피지 않는다”
한동훈 · 홍익표 통도사 찾아 종정예하 · 총무원장 예방도

양산 통도사=윤호섭 기자

조계종의 신성이자 최고 지도자인 중봉 성파 대종사가 종단을 이끄는 주요 소임자들에게 조계종풍을 바탕으로 한 새 시대 혁신을 주문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3원 체제인 중앙종무기관을 총무원 1원 체제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되며 갑진년 한 해 많은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종단 미래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격려로 풀이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2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신년하례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전국교구본사주지, 주요 신행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하례는 성파 대종사의 헌향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의 헌화가 이어졌다. 통도사 노전스님의 창불에 따라 부처님전에 큰절을 올린 사부대중은 이후 종정예하께 삼배를 올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예를 다했다.

이에 성파 대종사는 〈금강경 오가해〉에서 송나라 야보 스님의 게송 ‘구죽생신순(舊竹生新筍) 신화장구지(新花長舊枝)’를 통해 사부대중이 명심해야 할 자세를 강조했다. ‘묵은 대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새 꽃은 묵은 가지에서 자라난다’는 뜻으로 그 어떤 혁신이 있더라도 모든 것은 과거부터 이어온 전통과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다.

성파 대종사는 “종단은 조계종풍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한다”며 “부처님 말씀은 경전으로 배우고 조사스님들 법문 귀로 들어 알지만, 세 살 먹은 어린이가 아는 것을 팔순 노인이 행하기 어렵다는 말처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종사는 이어 “너무 자주 움직이는 짐승은 화살을 맞기 쉽고, 너무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가 쉽다”면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 우리 종단은 체계가 잘 구성돼 있기에 종헌종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응하듯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대한민국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등 굵직한 종단 사업들의 의미를 짚었다. 진우 스님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현대인의 정서와 언어에 맞는 선을 기반으로 명상법을 보급,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고 글로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총무원 부서의 통합과 개편화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일신하고, 종도들의 원력을 받들면서 맡은바 소임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년하례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성파 대종사와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성파 대종사는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조선사람’이라는 정신문화 덕분에 우리 민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살려야 민족이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명심하겠다. 말씀하신 가르침을 잘 받들고 걱정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성파 대종사는 홍익표 원내대표에겐 ‘호국불교’의 가치를 강조하고 “불교를 종교만으로 보기보다는 민족의 전통과 문화로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교계 숙원사업인 전통사찰 개발제한이 해소되도록 힘쓰고 있다. 잘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의 예방은 양당 모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불교전통수행법인 위빠사나·사마타 수행이 서양으로 건너가 변용을 거쳐 불교로 역수입된 현상을 지적하면서 “종교를 떠나 보편적인 명상법을 개발해 국민에게 보급하고 세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좋은 말씀”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홍 원내대표도 “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군장병 전법 활성화로 청년 포교 진흥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 · 군종교구 등
軍전법 활성화 위한 TF 구성
“군포교는 청년 전법의 고리”
자승 대종사 유지서 비롯돼
장병 DB구축 등 시스템 마련

조계종이 군장병 전법 활성화를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군포교를 통한 청년전법 활동에 본격 나선다.

TF팀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 포교원, 청년대학생 전법단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군장병 DB구축을 통해 군포교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전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전과 방향, 과제 등 군포교에 대한 기본정책 설정을 담당, 이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각 분야별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TF팀 구성은 지난해 11월 29일 입적한 자승 대종사가 강조한 ‘청년 전법’ 유지에서 비롯됐다. 자승 대종사는 청년 전법에 있어 군포교는 대학생, 사회인까지 연결되는 놓쳐서는 안될 불사임을 강조하고 군포교 활성화에 진력, 복무 후 대학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에게 불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최근 중앙신도회 및 포교단체 임원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포교를 전담할 TF 조직을 언급했으며 “대학생과 청년계층 포교의 중심은 군불교이며, 전법 포교의 오랜 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군불교는 대학생 청년 전법 포교의 최전선에서 최선봉이 돼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군포교에 나설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최대 화두는 전법이며, 그 중에서도 대학생 청년 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써 한국불교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탈종교화시대 등 위기의 시대에 젊은층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국군장병들을 위한 포교 전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병뿐 아니라 장교와 군무원까지 범위를 차차 넓혀 적극적인 군포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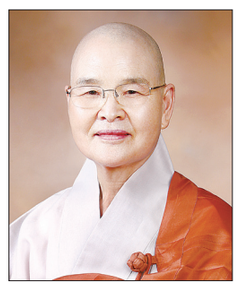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광용 스님 ‘걸출 비구니 여성상’ 선정

3월 8일,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서 수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사진〉이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이사장 견인 스님)가 선정하는 ‘걸출 비구니 여성상’을 수상한다.

‘걸출 비구니 여성상’은 대만 비구니사찰 연합단체인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가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정한 것이다. 포교와 수행, 문화, 교육, 복지 분야 등에서 탁월한 활동을 펼쳐 비구니 위상을 높인 전 세계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시상식은 3월 8일 오전 9시 대만 갸오슝 아레나한신백화점 9층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비구니평화대회’에서 진행된다.



대만불교비구니협진회 이사장 견인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은 1월 9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을 방문, 광용 스님에게 수상 선정 소식과 함께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2024년도 상반기 불교명상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급수	전문가	1급	2급
강의 기간	-교육 : 3월 9일~6월 29일(15회) -3박4일 집중수련	-교육 : 3월 7일~7월 18일(16회)	-교육 : 3월 2일~6월 22일(총 15회) -워크숍 : 6월 29일 (1회)
강의 시간	-매주 토요일 9:30~16:3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교육 매주 목요일 10:00~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매주 토요일 10:00~17: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워크숍 토요일 9:00~21:00
대상	-불교명상지도사 1급 수료자	-불교명상지도사 2급 수료자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비고	-교육 6회, 3박4일 집중수련 대면 참석 -집중수련비용 별도	-교육 6회 대면 참석	-교육 5회, 워크숍 대면 참석 -워크숍 비용 포함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불교상담개발원(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모집마감 : 2급 – 2024년 2월 23일(금) 17시까지 / 전문가, 1급 – 2월 16일(금) 17시까지

수 강 비 : 108만원(카드 3회 분납 가능), 관련 자격고시비 및 집중수련비 별도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 팩스 접수
*E-mail : jabi3719@daum.net / fax : 02-737-8802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특 전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자격고시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인증과정
3. 교육비 할인 (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문의 T.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